

매체 동향¹⁾

1. 북한매체 보도 동향

1.1. 농업 정책

1.1.1. 현지 시찰(김정은·주요 간부)

- 위화도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지구 조성 후 현황(기행 1)(민주_06-09)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 이후 유채밭·온실호동이 어우러진 대규모 농장도시 조성이 마무리됨.
 - 무인기를 이용한 온실작물 영양액 분무를 도입, 수동분무 대비 인력·시간을 크게 절감함.
 - 기존 국내 온실농장들과 비교해 규모·설비 면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소개함.
 - 온실의 생산환경을 자동관리하는 조종반을 도입해 흙 한 점 묻히지 않고 농사짓는 환경을 구현함.
 - 수확한 남새를 저장고에 보관 후 신의주시내 남새상점까지 당일 수송·공급하는 유통 체계를 갖추.
 -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이 지능형통합생산체계와 재자원화기술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함.
- 강동군 강동종합온실농장 등 지역 발전상 취재(기행 2)(노동_06-18)
 - 강동종합온실농장은 중평·련포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남새생산기지로 조성됨.

1) '서울평양뉴스(SPN)' 안윤석 대기자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재정리 한 것임.

- 원통형·반구형 온실에서 수박·도마도·고추·진채 등 열매남새·기능성남새를 재배 중임.
 - 지방공업공장 등 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지역경제 발전상을 소개함.
 - 착공식에 참석해 직접 첫삽을 뜬 이력과 이후 여러 차례 현지도로 조성이 완료된 경위를 소개함.
 - 강동군 송가고급중학교가 낡은 교사를 헐고 새로 지어져 체육관·야외수영장 등을 갖췄다고 소개함.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송금축산농장에서는 우량품종 확대로 젃가루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했다고 소개함.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남새 생산·공급 현황 재조명(민주_06-27)
 - 오이·도마도·고추·배추·호박 등 수십 종 남새를 매일 대량 수확해 평안북도 주민에 공급 중임.
 - 건설 과정에서 형성안 170여 건, 기술설계도면 3,850여 건이 마련됐다고 소개함.
 - 2025년 8월 이후 수 차례 현지도를 거쳐 완공에 이른 경위를 재조명함.
 - 2025년 8월·9월·10월·11월, 2026년 1월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이력을 소개함.
 - 군인건설자와 청년전위가 건설을 전담했으며, 이들의 헌신을 온실농장 조성의 원동력으로 제시함.
 - 완공 후에도 보건시설·종합봉사소·남새종합가공공장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함.
 - 함경북도 중평 옛 비행장 부지, 온실농장 전환 결정 경위(노동_07-21)
 - 2018년 7월 함경북도 현지도 당시 중평지구 군용 비행장 부지를 남새온실 건설 용지로 결정함.
 - 함경북도 주민의 남새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장 구획을 온실농장 조성지로 지시함.
 - 이 결정이 이후 중평온실농장 건설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소개함.
 - 해양성기후로 냉해가 잦아 남새농사가 어려웠던 지역 특성을 온실 건설의 이유로 제시함.

- 약 100정보 규모의 온실농장이면 함경북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전함.
- 강원도양묘장 방문 등 인근 일정에서도 같은 구상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소개함.
- **중평온실농장 건설 경위 및 함경북도 남새 공급 성과(노동_08-02)**
 - 2019년 10월 건설 마감단계의 중평온실농장을 방문, 온실·양묘장·농장마을 배치를 점검함.
 - 궁릉식·량경사면련결식 등 다양한 온실형에서 고추·도마도 등 재배 현황을 확인함.
 - 선진 재배기술 도입과 수확고 제고를 통해 함경북도 주민에 남새를 공급할 것을 지시함.
 - 새로 조성된 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농장원 살림집·공공건물 배치를 점검함.
 - 평양의 거리 하나보다 지방의 이런 창조물 건설이 더 만족스럽다는 언급을 인용함.
 -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 사례로 제시하며 이후 다른 지방 온실농장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 **삼지연식농법 창시 배경 - 지역맞춤형 감자농사 지도 사례(민주_08-21)**
 - 2018년 10월 삼지연군 현지도 당시, 대흥단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던 감자농사 관행을 지적함.
 - 해발고·강수량·적산온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농법(삼지연식농법) 개발을 지시함.
 - 토지개량·물거름 시비·기계화 확대·우량종자 육종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소개함.
 - 다른 단위의 경험을 무조건 답습하지 말고 자기 실정에 맞게 검증할 것을 함께 지적함.
 - 삼지연식농법이 정착되면 정보당 감자 평균 40t 생산이 가능하다는 목표를 제시함.

1.1.2. 농업 정책·지시

-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법 해설(민주_06-00)**
 -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집행법 취지와 기본원칙을 해설함.

- 농촌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소개함.
- 지방 인민위원회의 집행 책임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설명함.

1.1.3. 영농 기술·경험

- 전국 밭벼재배면적 확대 - 벼농사 알곡생산구조 전환(노동_06-08,06-11, 신보_06-19)
 - 당 방침에 따라 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밭벼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함.
 - 물부족지·천수답에 적기 파종, 두벌농사 뒤그루 밭벼 재배를 위한 준비를 갖추.
 - 전국 모내기가 6월 7일까지 기본면적에서 결속됐으며, 선진 모기르기방법 도입 비중이 65% 이상으로 높아짐.
 -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900여 동의 벼모재배온실이 건설된 것으로 집계함.
 - 황해남도 등 도 단위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별도 작전안을 수립함(복수매체 보도).
- 지난 5년간 다수확농장·작업반·분조 실적 집계(민주_08-21)
 -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연 1,400여 개 다수확농장, 1만 4천여 개 다수확작업반, 5만 1천여 개 다수확분조가 배출됨.
 - 이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 투쟁 성과로 제시함.
 -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농업전선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소개함.
- 농업부문 정보화, 생산 향상의 핵심 과제로 제시(노동_08-20)
 - 경지면적이 제한된 여건에서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함.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과 정보화를 결합할 것을 주문함.
 - 과학농사 시대에 맞는 정보 활용 필요성을 제시함.

1.1.4. 농업 생산 동향

- 전국 밀·보리농사 결과 평가 및 향후 과제(노동_07-07)
 - 올해 재배면적 확대와 비배관리 강화로 여러 지역에서 밀·보리 다수확을 달성함.
 - 다만 예견성 있는 사전 작전 수립이 미흡했던 사례도 함께 지적함.
 - 밀·보리 재배면적 확대가 전국적인 알곡생산구조 전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함.
 - 영농사업 전반의 과학적 예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함.
- 엘니뇨발 장마 조기화 대응 - 밀·보리농사 신속 결속 및 낱알허실 방지(노동_06-19)
 - 기상당국이 엘니뇨 영향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보함.
 - 이에 맞춰 밀·보리 수확을 단기간에 마무리할 것을 각지에 지시함.
 - 기상수문국이 예년보다 이른 장마 시작을 예보한 데 따른 선제 대응으로 소개함.
 - 수확·운반·탈곡 과정에서의 낱알허실 방지를 병행 과제로 제시함.
- 전국 앞그루밀·보리 수확 실적,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향상(노동_06-18)
 - 6월 17일 기준 전국 밀·보리 수확 실적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높게 집계됨.
 - 알곡생산구조 전환(벼·밀농사 강화) 방침에 따른 성과로 평가함.
 - 농업위원회와 각 도·시 단위의 조직적 독려가 배경이라고 소개함.

1.2. 농림축수산업

1.2.1. 농업(일반)

- 평안북도 토지정리돌격대, 간석지포전정리 상반기 목표 초과(노동_06-29)
 - 평안북도려단이 올해 간석지포전정리 과제의 75% 이상을 상반기에 완료함.
 - 석화간석지에서는 1년 치 계획을 상반기에 모두 마친 것으로 소개함.
 - 애도간석지 등 추가 구역 정리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안석간석지, 간척 이후 첫 벼농사 결실(노동_08-21)
 - 과거 간척된 안석간석지에서 벼가 무르익어 첫 수확기를 앞두고 있다고 소개함.
 - 간척지 벼농사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사례로 제시함.
 - 지역 알곡생산 기반 확대의 성과로 소개함.

1.2.2. 축산업

- 당 제9차대회, 축산업발전 정책적 요구 제시(민주_07-02)
 - 축산기지 현대화를 축산업발전의 첫째 정책적 요구로 제시함.
 - 이 밖에 집집승종자·먹이·사양관리 개선 등을 포괄적 요구사항으로 언급함.
 - 인민 식생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식료공장 부산물 활용, 집집승 배합먹이 생산기술 개발(노동_07-28)
 - 리과대학 생명과학부가 식료공장 부산물을 활용한 배합먹이 생산기술을 개발함.
 - 원가를 낮추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함.
 -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효과도 함께 제시함.
- 재배장 녹색먹이 생산방법, 축산 사료문제 해결 기여(민주_06-01)
 - 풀판 개량과 영양가 높은 먹이풀 재배를 사료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제시함.
 - 재배장에서의 녹색먹이 생산방법과 풀판관리 기계화를 함께 강조함.
 - 우량 종자 육종 못지않게 사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 삼광축산농장, 지능형통합생산체계 특등 평가(신보_06-01)
 - 정보화·지능화된 생산·경영관리체계가 현대축산의 본보기로 주목받음.
 - 수십㎥ 규모 농장의 생산·경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분석하는 체계라고 소개함.
 - 축산·농산·젖제품생산을 아우르는 복합기업체 운영 사례로 제시함.

- 전국 젓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1.3배 증가(노동_08-27)
 - 올해 들어 전국 젓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로 늘어남.
 - 풀먹는집집승기르기의 과학화수준 제고를 증산 배경으로 제시함.
 - 당의 육아정책 관철 차원에서 성과를 강조함.

1.2.3. 수산·양어

- 련포온실농장, 남새 생산 성과 확대 - 함경남도 주민 공급(노동_07-06)
 - 상반기 생산계획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계속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함.
 - 함흥시를 포함한 함경남도 주민에게 신선한 남새를 정기 공급 중이라고 밝힘.
 - 전국 축산기지·양어장·온실·버섯생산기지 확충 흐름의 일환으로 소개함.
- 전국 480여 개 시범농장, 논판양어 새끼물고기 방류(노동_06-19, 중통_06-24)
 - 6월 중순~하순 사이 시범단위 480여 개 농장에서 수천만 마리를 방류함.
 - 각지에 도·시·군 종어사업소 및 작업반 건설이 병행 추진됨(50여 개 대상 완공).
 - 각지에 도·시·군 종어사업소 및 작업반 건설이 병행 추진됨(50여 개 대상 완공).
 - 논판양어를 통한 알곡·수산물 동시 증산을 목표로 제시함.
- 전국 2,000여 정보 논에 새끼물고기 방류 - 농업위원회 집계(민주_07-03)
 - 농업위원회가 논판양어의 과학적 지도체계를 수립, 도·시·군별 여건에 맞춘 추진을 지시함.
 - 전국집계 기준 2,000여 정보의 논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한 것으로 집계함.
 - 도·시·군별 여건에 맞춘 과학적 지도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시함.
 - 양어를 신선한 물고기 공급 확대의 중요한 방도로 제시함.
- 장마철 논판양어 관리요령 - 시설 점검 당부(노동_07-23)
 - 물빼기시설·무덤이관 보수, 논둑 다지기 등 장마 대비 조치를 안내함.

- 고온다습 조건에서 먹이 부패 방지 관리도 함께 당부함.
- 장마철 양어시설 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산 유지를 강조함.
- 수산성, 수산업 지도체계 혁신 추진(민주_06-17)
 -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따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방법 혁신을 추진함.
 - 성 차원의 작전·지휘 개선을 강조함.
 - 전면적발전기 요구에 맞춘 지도방식 전환을 지시함.
- 락원포, 바다가양식사업소 중심 산업지구로 전환(노동_07-22, 신보_07-28, 중통_07-30)
 - 함경남도 락원군에 바다가양식사업소·어촌문화지구·온실농장·지방공업공장이 함께 건설됨.
 - 지방발전정책 3년차 계획에 따른 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례로 소개함.
 - 수산물·남새·지방공업제품 생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개선을 목표로 제시함(복수 매체).
- 함경남도,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독려(노동_08-03)
 - 함경남도당위원회가 건설 조직동원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함.
 - 올해 계획된 사업소 건설의 조기 완료를 목표로 제시함.
 - 지방공업 진흥 방침과 연계한 사업으로 소개함.

1.2.4. 원예·특작·과수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양묘장·과수원 신규 건설(노동_08-18)
 - 착공 한 달여 만에 10여 동의 건물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외부 미장작업을 진행함.
 - 기존 온실농장지구에 양묘·과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소개함.
 - 지구 내 농업 인프라 확충의 연속 사업으로 제시함.
- 중평온실농장,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신설(노동_06-18)
 - 온도·습도·탄산가스 등 환경인자를 정밀조종할 수 있는 재배장치를 도입함.

- 낮과 밤 주기 임의 조절 등 자동화 수준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남새생산의 현대화·집약화·공업화 방침을 구현한 시설로 소개함.
-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 남새 육종·재배 연구 심화(민주_08-21, 중통_08-19)
 - 열매남새육종연구실이 국내 기후에 맞는 신품종 개발에 주력함.
 - 수경재배연구실은 재배기질 국산화와 영양액 재활용 체계를 연구함.
 - 생물공학연구실은 딸기 무바이러스 묘 생산 등을 추진함(복수매체).
- 강동종합온실농장, 남새생산 기반시설 강화(중통_08-06)
 -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의 빛조건 최적화로 생산원가를 낮춤.
 - 다층재배·상자식재배·겹재배 등 온실공간 효율화 방법을 도입함.
 - 생산량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술적 토대 구축으로 소개함.
- 중평·련포·강동·신의주 대규모온실농장, 생산 성과 종합(노동_08-05, 08-29, 06-20)
 - 4대 대규모온실농장이 각각 성과를 내며 전국 남새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함.
 - 농장 간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과 생산량 확대를 도모함.
 - 온실 확충을 통한 사계절 남새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함(복수매체).
- 신의주시, 남새상점 확충 사업 추진(민주_07-09, 중통_07-21)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남새 증산에 맞춰 시내 남새상점을 늘림.
 - 공급 유리 지점에 상점 부지를 확정, 신속히 건설을 추진함.
 - 열흘여 만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소개함.
- 농업과학원, 농업 현대화·정보화 연구 강화(노동_08-01)
 - 당대회 결정에 따라 농업의 현대화·정보화·공업화 실현 연구를 확대함.
 - 여러 연구단위가 관련 실천연구성과 도출에 주력한다고 소개함.
 -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통한 생산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함.

1.3. 농업 기반·농기자재

1.3.1. 수리·관개 인프라

- 전국 논밭관개체계, 수십만 정보 규모로 완비(신보_06-24)
 -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완비된 논밭관개체계가 수십만 정보에 달한다고 소개함.
 - 관개체계 정비·완성 사업이 농업생산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함.
 - 관개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자평함.
- 관개체계완비 투쟁 - 저수지 확충·설비 개건 병행 추진(노동_08-06)
 - 평원군 등에서 저수지 바닥파기 공사로 물확보 능력을 높임.
 - 관개공사에 필요한 설비·자재 생산 확대를 위한 예비·잠재력 발동을 강조함.
 - 각지 관개공사 대상별 추진 현황을 점검, 독려함(연재 기사).
- 평안북도, 태천5호발전소~운전·정주·곽산 물길 보수 확장(신보_06-05)
 - 물길 대보수·신설 및 간석지물길구조물 공사를 완료함.
 - 평안북도 1만 수천여 정보의 포전과 예정 간석지에 관개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함.
 - 관개용수 통과능력이 종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소개함.
- 각지 관개부문 공장·기업소, 개건현대화 추진(노동, 중통_08-29)
 - 황해남도 해주관개기계공장, 강원도 원산관개기계공장 등의 개건현대화가 진행됨.
 - 세멘트·철근 등 자재 우선 보장으로 공사 속도를 높임.
 - 관개기자재 생산기지 현대화를 통한 관개공사 지원 강화로 소개함(복수매체).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등, 자연에너지 발전설비 확충(노동_08-01, 신보_08-11)
 - 해주시 대형 태양빛발전소 건설에 이어 여러 단위로 확산됨.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삼광축산농장 등에 자연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함.
 - 전력수요의 일정 부분을 자체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온실 수확고 제고 요인 - 현대화 기술·조명·관수 관리(민주_07-22)
 - 온실 현대화와 현대적 기술 도입이 남새 평균수확고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소개됨.
 - 발광다이오드 조명 전환으로 생육단계별 적정 빛조건을 조성한다고 설명함.
 - 관수관리를 통한 뿌리 부위 환경 개선도 함께 다룸.

1.3.2. 농촌 건설

- 삼광축산농장 일대, 사회주의농촌 표준 마을로 조성(민주_06-21)
 - 문화주택과 공공시설, 원림경관이 어우러진 마을 경관을 소개함.
 - 산골 축산농장을 도시 부럽지 않은 생활환경으로 전환한 사례로 제시함.
 - 많은 참관객이 방문하는 사회주의농촌 표준 사례로 소개함.
- 운전군 삼광기술고급중학교 준공(신보_06-02)
 - 삼광축산농장 인근에 연건축면적 수천㎡ 규모의 3층 교사동을 준공함.
 - 체육관·야외수영장·운동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
 - 농촌교육발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소개함.
- 각지, 자체 건재생산토대 강화로 농촌건설 뒷받침(노동_06-01)
 - 지난 5년간 확대된 농촌·지방건설 수요에 맞춰 건재 자급 기반을 강화함.
 - 시·군별 세멘트보관고 건설, 자재 전진공급 체계도 함께 정비함.
 - 건재생산이 건설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관점에서 강조함.
- 강원도인민위원회, 원산온실농장 등 목표과제 관리(민주_06-21)
 - 주요 대상별로 담당 일군을 지정해 진도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함.
 - 원산온실농장 건설을 도 차원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함.
 - 지역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도방식 개선 사례로 제시함.

1.3.3. 비료·농약

- 중평온실농장, 자체 개발 식물·미생물 농약으로 병해충 관리(중통_06-25)
 - 자체 제조한 식물성·미생물 농약을 주 2회 분무해 작물 병견딜성을 높임.
 - 씨앗소독·싹틔우기 등 기술적 문제 해결과 병행 추진함.
 - 전년 대비 1,000여t의 납새 증산을 달성한 요인으로 소개함.
- 량강도, 감자역병 방지대책 강화(민주_07-26)
 - 잦은 강우와 고온 조건에서 감자역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
 - 도내 모든 감자산지를 대상으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함.
 - 병해 조기 차단을 통한 소출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함.
- 침수 피해 포전 대응 - 다원소 광물질비료 활용법(노동_08-27)
 - 침수된 포전 작물에 다원소 광물질비료를 분무해 병 확산을 억제함.
 - 20여 종의 미량원소로 생육 개선과 광합성 효율 제고 효과를 설명함.
 - 간단한 희석·분무 방식으로 현장 적용이 쉽다고 소개함.

1.3.4. 농산물 가공·저장

- 밀가공품 확산 - 식생활 구조 변화(민주_08-27)
 - 밀가공공장 확충에 따라 밀가루 및 밀가공품 소비가 늘고 있다고 소개함.
 - 알곡생산구조를 벼·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연계해 다룸.
 - 식생활의 다양화·간편화 추세로 평가함.
- 온실작물 보관·보존 방법 안내(노동_06-02)
 - 감자·양파·마늘 등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10~15℃)에 보관할 것을 권고함.
 - 푸른잎납새·고추 등은 냉동 보관이 적합하다고 안내함.
 - 습기·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함.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남새종합가공공장 건설 추진(민주_06-17)
 - 조선인민군 제124련대가 보건시설·종합봉사소와 함께 건설을 담당함.
 -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가공시설을 병행 조성함.
 - 완공 시 지역 남새 가공역량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소개함.

2. 국내매체 보도 동향

2.1. 남북 및 국제관계

2.1.1. 남북관계

정동영 장관 “北, 두만강 일대 개발 함께 해야”(서울경제, 6.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재가입을 촉구했음.
 - 정 장관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 대화 개회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음. 정 장관은 “GTI의 미래를 위해 ‘북극 항로’ 협력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등 두 가지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GTI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철도망을 북극 항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에 혁신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정 장관은 “이 구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정 회원으로서 GTI에 재가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구상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DPRK는 북측이 주장해 온 정식 국호이자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국호임.

李 “빋장 걸린 北의 대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동아일보, 7.2)

- 이재명 대통령은 “단단하게 빋장이 걸린 북(北)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된다. 열릴 때까지

지 두드리면 열리는 것 아니냐”고 했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남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집권 2년 차를 맞아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임.

-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공언해 왔다”면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 3대 원칙을 재차 언급했음.
- 이어 “이제 평화를 향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음.

북,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접경지 주민 피해 없도록 대응”(한겨레, 7.21)

- 북한이 7월 20일 저녁 예고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남쪽으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경 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저녁 8시47분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기후부는 매일 2~4회 위성 영상을 통해 북한 접경 지역을 감시하고 있음.
- 이번 방류는 20일에 이어 21일까지 북한의 임진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황강댐 유역에서 홍수와 범람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사전에 조치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7월 20일 밤 9시 우리 쪽의 군남댐 상류 필승교의 수위는 0.77m까지 올랐으며, 점차 상승했음. 기후부는 대피 기준 수위인 1m를 넘으면 댐 하류를 순찰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대피에 나서고 있음.
- 북한은 이번에도 황강댐 방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음. 2009년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 피해가 일어난 이후,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을 방류할 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음. 하지만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은 2013년부터 사전 통보하지 않고 있음.

외교부 “北, 북미대화 가능성 유지…대화 재개 지원, 대북 소통 채널 확보”(뉴스1, 8.5)

- 외교부는 북한이 조건부로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아직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제3국과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음.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2026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외교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협력과 북중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이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기여 의지를 토대로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 북러 밀착과 북중관계 복원 국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특히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1.2. 북중관계

“北석탄 불법 수출 작년 150만t 추정…정제유 반입 상한 7배 초과”(연합뉴스, 6.7)

-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석탄·광물 무역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 위장 등으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했음.
- 국민의힘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는 유엔 대북 제재가 정한 상한선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했음.
- 또,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금수품 광물 수출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t 규모로 추산됐음.

北 무역일꾼들 단둥·옌벤 자주 드나들어…북중 간 무역 접촉 급증(데일리NK, 6.11)

- 최근 북한 무역일꾼들이 중국 현지를 빈번하게 오가며 중국 측 사업가들과 직접 만나 물품 수입 상담과 주문 계약을 의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 단둥, 옌벤 일대의 중국 무역업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 사흘이 멀다 하고 북한 무역일꾼들이 업체에 드나들며 물품 수입 상담을 진행하고 주문 계약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단둥의 한곤무역과 옌벤의 성호무역 등 기존에 북한과 거래 경험이 있는 현지 업체들에 북한 무역일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이들이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만 100여 종이 넘는데, 특히 북한이 추진 중인 '지방 발전 20×10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벌고, 외상 당기되, 사상은 섞이지 말라”…대중 관계 원칙 제시(데일리NK, 7.14)

- 북한 당국이 내부의 사상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내각에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경제 부문과 관련해 중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 가방을 열 수 있도록 일꾼들이 ‘용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파격적인 실리주의적 지침이 제시됐음.
- 반면, 정치 및 내부 안전 분야에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철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라는 지침도 강조됐음. 이와 관련해 실제 지시문에는 “돈은 벌고, 외상도 당기되, 사상은 섞이지 말라”는 내용이 강조됐다고 함.

북중 상반기 교역 15억 달러 돌파…2017년 이후 최대(VOA, 7.21)

- 북한과 중국의 올해 상반기 교역액이 15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음. 신종 코로나 사태와 대북 제재로 크게 위축됐던 교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1~6월 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15억 687만 달러로 집계됐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 6천76만 달러보다 19.6% 증가한 수치임.

북한-중국 교역 안보리 제재 이전 수준 복귀(뉴시스, 8.19)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달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1월~7월 누적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음.

-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자료에 따르면 7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437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6월의 3,704만 달러보다 19.8%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해 7월보다는 27.5% 증가한 것임.
- 최근 북한은 중국에 텅스텐 등 광물 수출을 늘려왔으며 7월 수출 증가도 텅스텐과 가발 제품 등이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됨.
- 7월 북한의 수입과 수출을 모두 합친 북중 교역 총액은 2억 2,936만 달러로, 지난해 7월의 2,524만 달러와 비교하면 11.8% 증가한 규모임.
-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15억 686만 달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발효하기 전인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임.

2.1.3. 북미관계

美상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 5년 만에 재발의(연합뉴스, 8.7)

- 미국 연방 상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이 5년 만에 재발의됐음.
 - 미 의회조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소속인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음. 공동 발의자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음.
 - 의회조사국 기록을 보면 마키 의원은 같은 명칭의 법안을 지난 2021년에 발의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은 5년여 만에 재발의된 것임.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정책 목표 유지”…김정은과 대화 재개 추진(아시아경제, 8.2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임을 재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언론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례 합동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

라고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를 밝힌 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무부 등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됨.

2.1.4. 북러관계

“월 100만 원대론 못 데려온다”...러시아서 北 노동자 임금 급등(뉴스1, 7.13)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현지 북한 노동자의 임금도 크게 올라, 한때 값싼 노동력으로 이들을 선호했던 러시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러시아 독립 매체 ‘메두자’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시는 환경미화원 등 도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할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낮은 임금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음.
 - 알베르트 유마딜로프 오렌부르크 시장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 노동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시 당국이 노동자 1인당 월 5만 5,000루블(약 106만 원)을 제시했으나 북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임.
 - 유마딜로프 시장은 “내가 알기로 북한 노동자들은 월 5만 5,000루블을 받고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임금 수준은 이보다 2~3배 높다”고 말했음. 그의 설명대로라면 북한 측이 요구한 임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1만~16만 5,000루블 수준으로 추산됨.

러, 정유공장 지어주고 北은 연료 만들어 주고(조선일보, 8.14)

- 러시아가 북한에 신규 정유공장을 짓고, 북한은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제공하는 에너지 협력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다수 파괴되자, 북한을 대체 연료 공급처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섉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

을 당시 에너지·경제 협력에 합의한 사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조사로 밝혀졌음.

- 우크라이나가 입수해 교도통신에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 내에 항공유·디젤유를 연간 최대 30만t 생산할 수 있는 정유소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음.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하고 원유를 수출하면, 북한이 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려는 구상으로 보임.
- 또 현재 가동이 멈춰 있는 북한 나선 소재 승리화학공장에서 연간 80만t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음. 이를 위해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 산하 설계회사인 렌기프로네프테힘과 승리화학공장 실무그룹이 상호 방문하기로 했음.

2.1.5. 기타 국제관계

“북한, 중·러 통해 광물 수출 확대…‘제재 회피·강제노동’ 고착”(뉴스1, 7.2)

-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석탄·광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수출에 따른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결합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최근 발간한 ‘제재를 순항하는 북한 광물’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지만, 북러 군사협력과 북중 협력 강화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고 분석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5대 주요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 활동은 2019년 783건에서 2025년 3,756건으로 약 5배 증가했음. 이 가운데 3,000건 이상이 북한의 최대 석유·석탄 화물 터미널인 남포항에서 확인됐음. 남포항에서는 제3국 선적 선박 대신 중국 국적 선박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직접적인 관여가 심화하는 양상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北, 중·러 넘어 동남아 공들인다…“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뉴스1, 7.18)

-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를 새로운 외교 축으로 삼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 속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

이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대면 외교 횟수를 급격히 늘리며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양새임.

-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동남아 외교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종료(2023년 9월) 이후 북한이 대면 외교 방식으로 진행한 ‘글로벌 사우스 외교’는 51건으로 파악됐음.
-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상대국은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3건(4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중동·아프리카 3건(6%), 중남미 3건(6%), 기타 22건(43%)이 뒤를 이었음.

2.1.6. 북한 경제사회 일반

누구도 예상 못 한 北호황...“러 군사협력·中물자 덕 수년래 최고”(뉴스1, 6.8)

- 북한 경제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수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 WSJ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한국 싱크탱크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봉쇄 이후 예상 밖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金正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엘리트층이 거주하는 평양에선 소비와 서비스, 건설 분야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게 WSJ의 설명임.
- WSJ에 따르면 최근 평양에선 스마트폰 택시 호출 앱과 모바일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등장했고, 중국산 전기차와 수입차도 눈에 띄게 늘었음. 반려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 카페, 고급 자동차 매장도 생겼음.
- 북한은 최근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WSJ는 북한이 작년에 평양에 새 주택 1만 가구를 건설했고, 평양 밖에서도 병원과 온실단지, 해변 관광단지,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해 8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싱크탱크들은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북한 시장 쌀·옥수수 가격 역대 최고치 찍었다…식량난 부추겨(데일리NK, 6.10)

-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 계절적으로 저장 식량이 소진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절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의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3만 8,500원(이하 북한 돈)에 거래됐음. 직전 조사 때인 2주 전 쌀값과 비교하면 22.2% 상승한 것임.
 - 같은 기간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 등 다른 지역 시장의 쌀 1kg 가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음. 전반적으로 쌀 가격이 3만 8,000원대까지 오르며 주민들의 식량 구매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임.
 - 옥수수 가격 상승 폭은 더 컸음. 평양의 한 시장에서 거래된 옥수수 1kg 가격은 1만 3,700원으로, 2주 전 8,900원에서 무려 53.9% 급등했음. 혜산의 한 시장에서 거래된 옥수수 가격도 1kg에 1만 3,900원으로 조사돼 2주 전보다 5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옥수수는 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식량으로 여겨져 왔지만 옥수수 가격까지 1만 3,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식량난이 한층 심화하고 있음.
 - 북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시장 곡물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계절적 요인을 꼽고 있음. 지난해 수확한 저장 식량이 대부분 소진되는 시기인 데다 아직 햇감자와 햇밀·보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전이어서 공급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임.

김정은 위협하는 北빈부격차·살인적 인플레이션..청년층 불만 가중(파이낸셜뉴스, 6.28)

- 북한의 빈부격차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위협이 되고 있음. 부의 대부분이 김정은·김여정 가족들과 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몰리면서 북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외화 조달 부담을 민간과 지방에 전가하면서 북한 원·달러 환율은 2년 새 377% 이상 폭등하여 화폐 가치가 무너졌음. 쌀값은 최근 1년 새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지원으로 북한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졌음.

-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80% 가까이 급등하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7만 원선을 돌파했음. 환율 급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휘발유 가격도 올해 1분기에만 리터당 4만 2,000원에서 7만 4,500원으로 77.4% 상승했음.
-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상위 1% 특권층이 전체 소득의 15%를 독점하고 있음. 외화 자산의 양극화도 극심함. 무역과 유통업을 장악한 신흥 자본가인 '돈주'와 권력형 당·정·군 간부들은 달러와 위안화를 쓰며 사치품을 소비하고 있음. 통일부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내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음.

北, 3년 연속 3%대 성장…'전쟁 머니'가 경제 성장 견인(이데일리, 7.31)

- 북한 경제가 러시아와의 밀착 및 대중 무역 확대를 발판 삼아 3년 연속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갔음. 국제적인 전쟁 상황과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가 오히려 북한 경제에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 경제는 2021년(-0.1%)과 2022년(-0.2%)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3.1%, 2024년 3.7%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굳혔음.
 - 북한 경제의 성장세는 대외 관계 변화에 힘입은 측면이 큼. 북·러 경제협력 확대와 대중 무역 증가, 국가 정책사업 추진 등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제조업(6.6%)과 건설업(6.3%)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했음.
 -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31억 3,000만 달러로 전년(27억 달러) 대비 16% 증가했음. 수출은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인 가발, 완구 등을 중심으로 30% 급증한 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의류와 유지류를 중심으로 13.9% 늘어난 26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음.

김정은, 제재 뚫고 31조 벌어들여…“집권 15년 이래 가장 부유”(이데일리, 8.7)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5년 만에 가장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음. 유엔 제재를 뚫고 4년 만에 220억 달러(약 31조 3,40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음.
 -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이코노믹스가 각국 무역통계와 정보기관 자료, 외부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은 2022~2025년 최대 220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음. 제재가 강화된 직후인 직전 4년의 약 4배임. 북한이 경제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치 상단값이며, 상당액은 국경 밖에 남아 있거나 물자·기술 이전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한은 “북한 시장 소득 양극화, 외부 충격으로 악화돼”(뉴시스, 8.23)

- 정치적 연줄 등에 시장 소득(비공식 소득)이 좌우되는 북한의 상황이 외생적 경제 충격 이후 더 악화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준시장화와 소득 양극화: 2014~2015년 경제 충격 사례’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부문은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 연줄이나 자본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준시장화적 특징이 있음.
 - 관련 연구를 보면 농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마당 경제’ 등은 북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일반 주민은 총소득의 약 70% 상당을 시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 문제는 시장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지만 공정 경쟁 관련 제도와 조세 및 재분배 제도, 사유 재산권 등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데 있음.
 - 북한 시장 경제는 2014~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생산과 수력 발전이 급감하고, 중국 경기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대외수출액 급감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며 큰 타격을 받았음.
 - 한은은 외생적 경제 충격 이후 시기(2015~2019년) 비공식 소득 양극화가 충격 이전(2011~2014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2.1.7. 북한 농수축산 임업

건물은 세웠지만 운영은 난항…북한 시설농업의 빈틈(데일리NK, 7.10)

- 최근 준공된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필수 영농자재와 종자, 시설농업 전문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임.
 -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대규모로 건설돼 대대적으로 선전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비료와 농약은 물론 파종에 필요한 채소 종자도 충분하지 않아 무역 기관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방식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임.
 - 특히 생산 조직, 시설 관리, 유통까지 아우르는 시설농업 경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장마당에 온실 채소·과일 쏟아져…높은 가격에도 제때 소비돼(데일리NK, 8.5)

- 최근 북한에서 시설농업 활성화로 장마당에 유통되는 채소와 과일의 종류와 물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높은 가격에도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실감난다”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 시내 장마당에는 비닐하우스(온실)에서 생산된 채소와 제철 과일이 대거 유통되고 있음. 과거보다 물량도 늘고 품목도 다양해졌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채소와 과일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제때 소비되고 있다는 점임.
 - 북한 당국은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과 농업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선전하고 있음. 장마당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은 계층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설명임.

북한 2단계 산림녹화 발표…목표치 1단계 5분의 1 수준(뉴시스, 8.26)

- 북한이 산림 복구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겠다고 공약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보도했음.

- 몽골에서 열린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은 총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올해부터 산림복구 2단계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 북한은 2015년 첫 번째 10개년 산림복구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북한은 지난 2024년까지 57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4년 북한이 2024년까지 산림면적을 168만 헥타르 늘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1.8. 대북 협력 및 인도 지원

북측 리호남 만난 오영훈 제주지사… 북한에 의료기기, 한라봉 묘목 보냈다(서울신문, 6.8)

-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쟈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 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5월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남북 농업 협력 재시동 모색…기후 위기·식량안보 공동 대응 논의(헤럴드경제, 6.17)

- 정부가 과거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재점검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 농촌진흥청과 통일부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사례를 통해 본 남북 농업협력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음. 참석자들은 과거 남북 농업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변화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음.

유엔 “북한 주민 40% 이상 영양 부족…인도적 위기 장기화”(VOA, 8.20)

-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부족을 겪는 등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음.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 취약한 보건 체계,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임.
- 유엔 서유럽지역정보센터(UNRIC)은 북한 주민 약 1천 70만 명,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라고 전했음.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도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약 18%가 장기간의 영양 부족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는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음.
- 유엔 서유럽지역정보센터(UNRIC)는 또한 북한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당국의 정책을 꼽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 정책이 기아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또 북한 내 많은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으며,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농작물과 주택, 기반 시설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식량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